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19
FOR PEACE & PROSPERITY

May 29 - 31, ICC JEJU

**동아시아 여성의 평화운동에서
협력과 통합의 길을 찾다**
Finding Ways to Cooperate and Integrate
In East Asian Women's Peace Movement

Contents

목차

- 07 I. 세션운영 개요
- 11 II. 기조발표 | 동아시아 여성이 만드는 평화
정현백 /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장관
- 17 III. 발표 | No Women, No Peace
Margo Okazawa-Rey / Professor, Mills College
(마고 오카자와 레이 / 캘리포니아 밀즈대학 교수)
- 23 IV. 발표 |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이금순 /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 29 V. 토론
좌 장 김은실 /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토론자1 권귀숙 /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토론자2 윤미향 /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동아시아 여성의 평화운동에서 협력과 통합의 길을 찾다

Finding Ways to Cooperate and Integrate in East Asian Women's Peace Movement

이 세션에서는 3·1운동 100주년과 본격적인 남북교류를 맞이해 여성의 관점에서 독립운동, 반전운동, 평화운동, 통일운동의 의미를 진단하고 국내 최대 여성항일운동이 일어났던 제주에서 동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해 평화정착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자 한다.

평화구축에 있어 여성들의 힘이 갖는 중요한 의미를 공유하고 동아시아 여성들의 평화활동을 재조명해 이번 포럼의 대주제인 협력과 통합의 평화가치를 도출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In commemoration of the 100th anniversary of 3·1 independence movement and commencing inter-Korean exchange, the significance of independence movement, anti-war movement, peace movement and unification movement will be revisited from the perspective of women in this session.

It is meaningful that distinguished guests gather here in Jeju, where the biggest female resistant group had fought against the governing of Japan, to discuss about the role of women for peace settlement. The light will be shed on various peace-making efforts led by women in East Asia and it will be discussed how women can contribute to peace building.



KIM Eun-Shil



CHUNG Hyun-back



Margo OKAZAWA-REY



LEE Keumsoon



GWON Gwisook



YOON Meehyang



좌장 김은실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기조발표 정현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
발표 마고 오카자와 레이 미국 캘리포니아 밀즈대학 교수
 이금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토론 권귀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윤미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Moderator KIM Eun-Shil Professor,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 President, The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Keynote Speaker CHUNG Hyun-back Former Minister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 Professor Emeritus, SungKyunKwan University
Speaker Margo OKAZAWA-REY Professor, Mills College
Speaker LEE Keumsoon President, Center for North Korea Human Rights Records, Ministry of Unification
Discussant GWON Gwisook Research Associate,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Speaker YOON Meehyang Representative,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 제14회 제주포럼 DIVERSITY 분야 | 세션 운영

제14회 제주포럼 DIVERSITY(여성 · 교육 · 문화) 분야 세션을 통해
여성의 관점에서 독립, 평화, 통일 운동의 의미 진단 및 평화활동 재조명

- **일 시** 2019년 5월 30일(목) 15:20 ~ 16:50
- **장 소** 제주국제컨벤션센터 2층 세션장 203호
- **주 제** 동아시아 여성의 평화운동에서 협력과 통합의 길을 찾다
- **공동주관** 성평등정책관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주요내용** 여성의 관점에서 독립운동 등의 의미진단, 동아시아 여성들의 평화활동 재조명 및 평화정책 협력방안 논의

■ 세션운영시간표

시 간		내 용
15:10 ~ 15:20		• 안내 및 착석, 시작고지
15:20 ~ 16:47	7'	사회 : 고지영(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정책연구실장) • 세션내용 및 연사소개, 기념촬영
	20'	좌장 : 김은실(이화여자대학교 교수) • 기초발표(정현백 전장관): 동아시아 여성이 만드는 평화
	15'	• 발표 : 마고 오카자와 레이(Margo Okazawa-Ray, 미국 밀즈대 교수) - NO WOMEN, NO PEACE
	15'	• 발표 : 이금순(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 - 남북관계와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20'	• 토론1 : 권귀숙(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 제주에서의 여성인권과 평화 • 토론2 : 윤미향(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 나비운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길
10'	• Q & A : 질문 2분 이내, 답변 5분 이내	
16:47 ~ 16:50	3'	• 세션내용 요약 및 폐회고지

김 은 실 Eun-Shil Kim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아시아여성학회 회장
Professor of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and President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과 교수이고, 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아시아여성학센터, 교양교육원 원장을 역임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영문학과를 졸업했고, 서울대학교에서 인류학 석사,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에서 인류학 박사를 받았다. 한국여성학회 회장을 역임했고, 현재 아시아여성학회 회장이고, AJWS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의 편집장이다. 1995년에 이화여대에 아시아여성학 센터가 만들어진 이래 아시아여성학자들과의 네트워킹, 아시아 8개국 여성학 교과서 편집, "서구여성학"에 대한 대안지식으로 "아시아여성학"이란 범주를 만들어내는 수많은 학술회의를 주최했고, 아시아 여성지성공동체를 만드는데 주요한 역할을 해왔다. 이화여대 아시아여성학센터 소장 재직 시 2005년에 세계여성학대회를 주최했고, 사무총장을 역임했다. 2004년에는 일본 오차노미즈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초대받았고, 2015년에는 미국 코넬 대학에서 객원교수로 초대받았다. 새로운 학문적 담론을 만드는 여성운동, 문화운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가하여왔고, 오랫동안 <또하나의 문화>의 이사이고, 서울국제여성영화제의 이사장이다. 여성과 몸, 여성학 이론, 아시아 여성 연구, 지구화, 이주, 신여성과 탈식민지식, 여성과 시민권, 최근 세계화와 토착(전통) 지식과의 관계 등이 주요 연구 관심이다. 한글과 영어로 된 다수의 논문과 책이 있다. 최근 4.3 관련 연구를 수행하고 있고, 한글과 영어로 된 "4.3 홀어머의 말하기와 몸의 정치" 등의 논문을 썼다.

Eun-Shil Kim is a Professor and Chair of the Department of Women's Studies at Ewha Womans University. She was the Director of the Asian Center for Women's Studies and the Director of Korean Women Institute at Ewha Womans University for many years. She is an Editor-in-Chief of the Asian Journal of Women's Studies (AJWS) and is currently serving as President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men's Studies (AAWS). Through the years, she has been involved in developing the intellectual community of feminist scholars in Asia since 1995 and has done research in the field of women's bodies, sexuality, modernity, nationalism, globalization, migration, feminist knowledge production, post-development issues, and violence against women during the war. She received her Ph.D. in Medical Anthropology from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She worked as the Secretary-General for the 2005 Interdisciplinary Congress on Women. She published many articles (e.g. "The Discourse of Nationalism and Women," "The Cultural Logic of the Korean Modernization Project and its Gender Politics," "Itaewon as an Alien Space within the Nation-State and a Place in the Globalization Era," "The Formation of Public Sphere and Gender Politics during the Nation-Building Period of the First Republic of South Korea in the 1950s," "The Politics of Institutionalizing Feminist Knowledge: Discussing 'Asian Women's Studies in South Korea," "The Politics of the Jeju 4.3 Holeomeong Bodies: "Speaking" and Emotion as Embodied Language", etc.) and books (e.g. Women's Bodies/the Cultural Politics of Bodies, co-authored books such as Fascism Within Us, Locational Feminisms in the Age of Globalization, Noh Muhyun Government's Experiments: Unfinished Reform, etc).

II. 기조발표

동아시아 여성이 만드는 평화

정 현 백

성균관대학교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장관

정 현 백

HYUN BACK CHUNG

성균관대 명예교수, 전 여성가족부 장관

Former Ministe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Professor Emeritus of SungKyunKwan University

정현백은 1953년 4월 9일 한국 부산 출생으로 여성가족부 장관(2017. 7 – 2018. 9)을 지냈고, 현재 성균관대 사학과 명예교수로 있다. 1984년 이래 성균관대 사학과 교수로 재직하였고, 주로 독일노동사, 여성사분야 연구로 많은 저서를 출간하였다. 대표적인 저서로는 <노동운동과 노동자문화(1990)>, <민족과 페미니즘(2003)>이 있다.

그 외에도 정현백은 열정적인 시민운동 활동가이다. 한국여성운동의 우산조직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의 공동대표를 역임하였고, 이어 대표적인 시민단체인 참여연대의 공동대표로 활동하였다. 주로 여성문제와 통일 평화운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Born in Busan on April 9, 1953, Hyun Back Chung was Minister of the Ministry of Gender Equality and Family (July. 7 – 2018. 9). She is currently Professor Emeritus at Sungkyunkwan University. Since 1984, she has been a professor at the Department of History at Sungkyunkwan University, and has published many books mainly on German labor history and women's history. Her most famous books are <Labor Movement and Worker's Culture (1991)> and <Nation and Feminism (2003)>.

She is also a energetic activist. She served as co-representative of the 'Korean Women's Association United', the umbrella organization of the Korean Women's Movement. She then served as a co-representative of the 'People's Solidarity for Participatory Democracy'. She is mainly interested in women's issues and Korean unification/peace movement.

동아시아 여성이 만드는 평화

1994년 4월에서 1995년 4월까지 르완다에서 있었던 인종학살에서 50만 명의 여성이 성폭행의 희생자가 되었다. 1992년에서 1995년 사이에 있었던 보스니아 전쟁에서도 5만 명의 소녀와 여성들이 '인종청소' 캠페인 아래 조직적으로 성폭행을 당하였고, 그중 많은 수가 적의 아이를 출산하도록 강요받았다. 1990년대 이후 전쟁 희생자의 90%가 민간인이었고, 그 다수는 여성과 어린이였다. 이런 점에서 전쟁과 폭력에서 여성은 일차적으로 희생자가 되고 있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여성의 모습 외에도 우리는 가해자로서의 여성도 발견한다. 혹은 평화를 만드는 주체인 여성을 만나기도 한다. 여성이 환경적으로 돌봄노동에 더 친화적인 만큼 여성이 평화에 대한 감수성이 더 높은 까닭일 것이다. 후투와 투치스가 함께 거주하는 시범촌을 운영하는 르완다여성, 정부와 분리주의자 사이에서 평화협정을 이끌어낸 파푸아 뉴기니아여성, 수단·벨그라드·캐스미르에서도 상처를 치유하고 화해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재자 역할을 한 여성들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에서도 여성들은 남성보다 먼저 평화운동을 시작하였고, 정치적 폭력이나 분단을 문제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일상생활 속의 평화 실현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단 상황에서 70여 년을 살면서 그 피해로 고통 당해온 여성으로서는 분단극복이나 통일 문제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독일 통일이후 동독에서 여성의 실업률은 13배나 증가하였고, 여성은 정리해고의 1순위 대상자가 되었다.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은 약화되었고, 낙태금지로 인해 몸에 대한 자율권을 상실하였다. 통일 직후 몇 년 동안 여성의 자살률은 급증하였다고 한다. 한국여성들도 독일통일에 자극을 받아, 평화통일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시작하였다: 남북여성교류의 활성화, 북한여성어린이돕기 운동, 북한이탈 여성주민 지원활동, 평화통일교육의 확산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평화통일과정에서의 여성참여와 관련하여 중요한 점은 정치적 대표성을 높이는 일이다. 여성이 국방부나 통일부, 외교부 등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자문기구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혹은 남북관계가 진전되어 사회문화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여성위원회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남북협력사업을 위시한 다양한 정부사업에 대한 젠더관점의 평가가 수반되어야 하고, 성별분리통계도 반드시 필요하다. 북한을 상대로 하는 개발정책이나 첨단교육에서도 여성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이런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부 내에 젠더 전담부서와 전문가의 배치가 필요하다.

이제 평화운동의 주체로서 여성의 활동을 말해보자. 1990년대 이래 여성들은 적극적으로 군축운동, 국방예산 감시운동,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반대운동, 이라크 파병반대운동 등을 다른 평화단체와 함께 진행하였다. 혹은 미군주둔협정인 소파협정개정에서 여성인권보호조항을 신설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여성의 평화운동은 다양한 문화 행사와 더불어 평화적인 집회형식을 개발함으로써 그간의 통일운동 관련 행사가 보여준 정치중심적인 운동방식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또한 일상문화 속에 스며들어 있는 군사주의 잔재를 극복하기 위한 캠페인이나 행사도 개최하였다. 인형극이나 청소년평화문화제 등을 통해서 문화를 통한 평화교육도 실행에 옮겼다. 여성평화운동이 수행한 또 다른 업적은 '갈등해소와 관용교육'을 제일 먼저 여성이 시작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갈등해소교육 전문가를 양성하고 정부 부처로까지 이를 확산하면서, 학교나 경찰 등에서 폭력과 관련된 갈등해소와 중재를 위한 활동을 확산시켜 나갔다. 여성 평화아카데미를 위시한 여러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여성을 위한 평화교육을 민간의 차원에서 확산시켜 나갔다. 여성평

화운동 이론이나 평화교육방법론의 개발이나 군대 내 폭력 및 인권실태에 관한 조사, 평화교육의 해외사례 조사 등의 연구활동도 진행하였다.

페미니스트나 여성평화운동의 적극적인 노력과 정부의 평화정책이 만난 사례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1325조항 의결과 한국의 국가행동계획 작성을 들 수 있다. 1325결의안은 2000년 10월, 분쟁예방 · 분쟁해결 · 평화유지 · 평화구축과정에서 여성의 중요한 역할을 강조하고, 여성의 완전한 참여와 포함을 요청하는 것이다. 또한 모든 평화유지활동에 젠더 관점을 추가할 것도 지적하고 있다. 이런 결의안이 실행에 옮겨지기 위해서는 국가행동계획의 수립이 필수적이다. 한국여성운동의 줄기찬 로비와 압력 하에 2014년 제1차 행동계획이 발표되고, 이는 2차 행동계획으로 이어졌다. 이를 통해서 국방 안보 통일 평화 외교 분야에서 젠더관점을 통합하고, 여성대표성을 높이고, 성별영향평가나 성인지 예산 운영을 강화하는 방안이 마련되고 있다. 그 결과 각 위원회나 자문위원회에서 여성 비율은 증가하였으나, 여성의 실질적인 개입이나 주체화는 아직 부족한 실정이다.

그간 한국의 여성운동은 동북아시아 평화를 위한 여러 국제연대활동을 해왔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2008년에서 2012년 사이에 열린 동북아여성평화회의를 들 수 있다. 일명 여성6자회의로 알려진 이 회의는 북핵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열렸던 6자회담 참여국가의 여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함께 토론하고 로비활동을 전개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를 통해서 한반도의 위기상황을 공유하고, 한반도 평화가 동북아평화이자 세계평화임을 확인하고,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적 여성네트워크를 결성하였다. 마찬가지로 2015년 5월 이래 열리는 WCM(Women cross DMZ)은 해외페미니스트들과 한국여성운동이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평화를 위한 활동을 공동으로 개최하는 좋은 사례가 되고 있다. 그 외에도 일본군 성노예제와 관련하여 국제연대활동을 활발히 벌리고 있는 정신대대책협의회를 위시한 여러 단체들의 활동도 평화실현을 위한 성공적인 국제적 네트워크로 언급되어야 한다.

특히 북한 핵위기가 고조된 가운데, 2018년 4월부터 극적으로 3회에 걸쳐 열린 남북 정상회담과 2회에 걸친 북미 정상회담은 남북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 있다. 이렇게 어렵사리 만들어진 한반도와 동북아의 신평화체제 실현에 우리 여성들도 함께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동아시아 여성네트워크가 강력한 역할을 할 수 있기를 한국 여성들은 기대하고 있다.

위에서 언급한 평화실현을 위한 국제적 여성네트워크는 평화의 중요성을 알리고 그 실현을 촉구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다. 그러나 이런 네트워크들은 재정부족과 전문인력 부족으로 정기적, 지속적인 활동으로 이어지기에는 많은 난관을 안고 있다. 앞으로 제주포럼이 이런 국제적 연대의 틀을 정례적으로 이어주는 연결체가 되어줄 것을 기대해본다.

Ⅲ. 발표

No Women, No Peace

Margo Okazawa-Rey

Professor, Mills College

마고 오카자와 레이

캘리포니아 밀즈대학 교수

제14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

JEJU FORUM 2019
FOR PEACE & PROSPERITY

Margo Okazawa-Rey

마고 오카자와 레이

Professor, Mills College

캘리포니아 밀즈대학 교수



마고 오카자와 레이 박사는 샌프란시스코 주립 대학교의 명예교수이다. 현재는 미국 캘리포니아 오클랜드 밀즈대학의 바바라 리 여성리더십의 특임 의장이자 여성, 젠더, 성 및 공공정책전공 방문교수로 재직하고 있다. 지난 25년 동안 그녀의 연구 및 활동의 주요 영역은 군사주의, 무력 분쟁,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이다. 오카자와 레이 교수는 한국 의정부의 두레방 국제자문위원회 위원, 스위스 베른의 세계평화여성국제위원회 위원, 그리고 미국 테네시 주 뉴 마켓의 하이랜더 교육연구센터 공동 의장을 맡고 있다.

최근 논문과 저서로는 <미국 반군사주의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국가화" 연합과 연대 정치>(출간중), <연대 없는 자유가 가능한가 : 지속가능한 페미니스트 연대를 꿈꾸다>(2018), <절망의 삶: 동남아시아의 여성, 권력, 그리고 변화>(2018), <하이랜더 교육연구센터와 협력하고 있는 리버럴 아츠 칼리지 : 학생 캠퍼스 운동과 개인 변혁을 위한 세대 간 학습>(2018) 등이 있다.

Dr. Margo Okazawa-Rey is Barbara Lee Distinguished Chair in Women's Leadership and Visiting Professor of Women, Gender, and Sexuality Studies and of Public Policy at Mills College in Oakland, California. She is also Professor Emerita at San Francisco State University. Her primary areas of research and activism for the past 25 years have been militarism, armed conflict, and violence against women, examined intersectionally. Professor Okazawa-Rey serves on the International Advisory Board of Du Re Bang in Uijongbu South Korea, International Board of Peace Women Across the Globe in Bern, Switzerland, and Board Co-chair of Highlander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in New Market, Tennessee, USA.

Her recent publications include "Nation-izing" Coalition and Solidarity Politics for US Anti-militarist Feminists(inpress); "No Freedom without Connections: Envisioning Sustainable Feminist Solidarities"(2018);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Women, Power, and Change in Southeast Asia(2018); "Liberal Arts Colleges Partnering with Highlander Research and Education Center: Intergenerational Learning for Student Campus Activism and Personal Transformation"(2018).

“No Women, No Peace”: Celebrating 100–Year Anniversary of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and Women’s Involvement Calling for Women’s Feminist Participation in East Asia Peace–Building

I begin my remarks today with the following quote from South Asian peace and gender justice activist and co–President of PeaceWomen across the Globe, Kamla Bhasin:

“The coming together of small lamps of peace work spread around the world has made us realize how big we can be if we join hands. We can now prove what we knew intuitively: it is women’s peace work that has ensured the survival of our fragile universe.”

Toward going beyond the goal of the survival of our universe to ensuring that all life forms thrive, I submit for your consideration the following points.

1. Korean people and notably Jeju women struggled mightily to remove the yolks of Japanese colonization 100 years ago in March 1 uprising, with their efforts ultimately thwarted by the Cold War division of the North and South, family from family. The current steps of the inter–Korean peace–making processes must be regarded as continuation and extension of the work for Korean independence, free from all unchosen external influences, because the successes are essential for the well–being of Korean people and signal to the rest of the world that peace is possible elsewhere.

2. The successes above depend on the meaningful participation of Korean women in the peace and reunification processes. Their work must also be built on a foundation rooted in feminist activist principles, regardless if the PeaceWomen personally identify as feminist or not. Evidence from various conflict locations around the world has shown that women committed to women’s liberation, alongside ending conflicts and wars, have better chances of creating lasting peace. The work must also employ existing international mechanisms such as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1325 that calls for women’s participation centrally in peace negotiations and post–conflict reconstruction and CEDAW that seeks to ensure women will develop to their full capacity and in equitable relationship to men in their societies.

3. To strengthen Korean women’s peace–work and to help create genuine human and environmental security, activists and existing regional networks must be recognized and supported. For example, for nearly 25 years since the rape of the 12–yearo–old junior–high school by military personnel, Okinawan women led by Takazato Suzuyo san have been steadfast in their opposition and activism against US Military bases in their homeland. They have

had working relationship with Korean women through this time to protect women and girls from military violence. Japanese activist Akibayashi Kozue san in Kyoto has worked both against US military bases in Okinawa and is part of the movement to support peace agreement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Lau Kin Chi in Hong Kong has been a leader in inter-Asia solidarity movement on environmental justice and sustainable development. East Asia solidarity also requires a cold and direct, but compassionate examination of histories of colonization, military interventions, and globalized economic processes that have created inequalities across the region.

The peace-work I'm describing must also build solidarities and create learning opportunities beyond East Asia. Peace-women and women human-rights defenders are challenging the authoritarian, violent Duterte regime in the Philippines; serving on the Truth Commission in post-conflict Colombia; and organizing for just peace in conflict zones in African countries, in Afghanistan, and in Palestine, to name a few examples. From their experiences there is much to learn.

One of the most important lessons for us to learn is that the forces that oppos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unity of the Korean people are the same as those in other places I named: greed; commitment by the few to accumulating and hoarding resources and power; so-called "development" that ignores environmental and human destruction; and subordination of women and other marginalized people in a society.

As women working for peace, I urge us to consider not only peace, the absence of conflict, but a fuller vision of "genuine security" developed out of solidarity among East Asian, Pacific islander, and US feminist peace activists.

- Guaranteed livelihood and basic needs;
- Physical environment able to sustain human and natural life;
- Fundamental human dignity honoured, cultural identities respected;
- People and natural environment protected from avoidable harm;
- Love = deepening connections and relationships among us all:

Because war dehumanizes, love is "a conversion to humanity — a willingness to participate with others in the healing of a broken world and broken lives. Love is the choice to experience life as a member of the human family, a partner in the dance of life."

IV. 발표

평화 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이 금 순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이 금 순
Keumsoon Lee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 센터장
President, Center for NK Human Rights Records,
Ministry of Unification



이금순 선임연구위원은 1994년부터 통일연구원에서 근무하여 왔으며, 남북간 인도주의사안과 북한인권관련 많은 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왔다. 1990년대 말부터 탈북민 심층면접조사를 통해 연구를 진행하여 왔다. 주요 연구저서 및 논문으로는 <남북한 여성 비교연구: 사회적 역할을 중심으로>, <한반도 민족분단과 여성: 평화적 통일을 위한 여성주의적 접근>, <국제사회 대북지원의 영향력 분석>, <북한주민의 거주이동: 실태와 전망>, <남북한 인도주의 협력의 의미와 과제>, <이산가족문제 해결을 위한 인도적 협력> 등이 있다.

이금순위원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통일부 통일교육원장을 역임한 바 있으며, 현재는 통일부 북한인권기록센터장으로 일하고 있다. 1993년 미국 퍼듀대학교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수여하였다.

Keumsoon Lee joined Korea Institute for National Unification in 1994 and has done many research projects on Humanitarian and Human Rights issues on the Korean peninsula. Dr. Lee has interviewed North Korean escapees for her researches since the late 1990s. Her major publications and writings are < A Comparative Study of Women in North and South Korea: focusing on Social Roles>, < National Division and Women in Korea: Women's Approaches to Peaceful Reunification>, <The Impact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Assistance on North Korea>, <Border Crossing of North Korean People: Implications and Prospects>, <Implications and Tasks of Inter-Korean Humanitarian Cooperation>, and <Humanitarian Cooperation for Resolution of the Separated Families>.

She also served as Assistant Minister for Unification Education at the Ministry of Unification from 2015 to 2017. Keumsoon Lee got Ph. D in Political Science from Purdue University in 1993.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

한반도에서 평화를 정착하는 것이 우리의 주요한 과제로 부각되었다. 이를 위해 평화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18년 통일연구원이 실시한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박주화 외)' 연구에 따르면, 한반도에서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우리국민들은 평화를 '비둘기(상징)'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¹ 해외연구(Linden)과 비교하여 우리국민들은 평화를 자유, 행복, 조화, 사랑, 번영 등 '공공 권리'가 아닌 '비둘기' 즉 상징으로 매우 추상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² 이는 분단과 체제대결이 오랜 기간 고착화되고 일상화된 한반도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화가 공동체의 당위적 목표로 설정되어 왔으나, 구성원의 일상적인 삶과는 거리가 있는 상징적이고 추상적인 개념으로 남아있다.

한반도에서 일제 강점, 분단, 정부수립을 둘러싼 이념대결, 6.25전쟁, 남북 체제대결은 '사회적 트라우마'를 만들어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기화된 갈등과 대결이 일상화되면서, 사회구성원들이 트라우마를 내면화하고 '평화로운 사회'에 살고 있다고 인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와 함께 고질적인 분쟁 속에서 편향된 사회-인지적 틀이 고착되었다.³ 강력한 자기보호와 집단안보를 강조하면서 사회와 국가에 대한 충성심, 개인의 희생, 사회적 결속을 강조하여 왔다. 전우택은 사회적 트라우마로 인한 왜곡된 사회인식을 지적하면서, 사회적 치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⁴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2000) 및 추가결의(8개)를 통해 유엔은 평화안보 분야의 성 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이행을 촉구하여 왔다.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위원회도 UNSCR 1325 이행을 위한 유엔회원국의 책임(국가행동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예산배정, 여성단체와의 협력)을 강조하고, 성과 재생산건강 및 권리를 젠더폭력방지 영역으로 규정하고 있다.⁵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여성의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시각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요인'에 대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재조명 노력이 필요하다. 여성계는 단순히 군사안보 차원에서 접근하던 평화의 논의를 확장해나가야 한다. 기존의 해외사례연구는 '평화협상과정에서 여성 참여'가 실제 합의된 평화협정의 실패확률을 감소시키고, 지속가능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⁶

여성이 다양한 사회집단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기존 권력체계에서 배제되었던 경험으로 오히려 평화협상에서 '정직한 중재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북아일랜드의 사례에서는 여성이 갈등 이후 화해와 회복을 돕는 과정에서 단순한 군사적 행동을 넘어서 사회적 이슈들을 제기하였다. 즉, 여성계의 관심 및 우선 순위가 통합교육, 사회적 포용, 지역 개발 등을 포괄하였다.

한반도의 평화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여성계의 역할은 다음과 같이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여성·평화·안보에 관한 유엔안보리결의 1325 관련 국제사회의 노력을 제대로 알리고, 국가행동계획(NAP) 논의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성계의 지속적인 요구와 교육 확대, 관련 예산 배정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

1. 박주화 외, 『평화의 심리학: 한국인의 평화인식』, KINU 연구총서 18-01, p.97.

2. 위의 글.

3. 위의 글, pp. 39-40.

4. 전우택·박명림, 『트라우마와 사회치유』(서울: 역사비평사, 2019)

5. 조영숙, "여성·평화·안보를 위한 UNSCR 1325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적용하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여성·평화·안보(WPS) 전문가 네트워크 워크숍(1019.5.7), 발제문, p.9.

6. Melanne Verbeke, Anjali Dayal, "Women are the Key to Peace,"

<https://foreignpolicy.com/2018/11/08/women-are-the-key-to-peace/>(검색일, 2018.4.30)

의 회원국으로서 갖는 국가적 책임과 관련하여, 남북협력의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여성계가 일제강점, 분단, 6.25전쟁, 체제대결로 인한 '사회적 트라우마'를 단편적인 차원에서 접근하는 노력을 주도할 필요가 있다. 우리 안의 상처를 제대로 드러내고, 사회적 치유를 위한 기억의 재조명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는 우리사회에 구조화된 갈등과 적대의식의 근원을 마주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야만 사회적 화해와 용서가 이루어지도록 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여성·평화·안보 논의에서 단순히 '여성의 의제'를 부각하기 보다는 공감할 수 있는 '전략적 이슈(strategic handle)' 혹은 촉매제를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선언적이고 원론적인 차원에서 '평화 만들기의 여성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대중적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이러한 차원에서 '일상에서의 평화'를 저해하는 사회 구조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여성이 주도하여야 한다. 이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사회적 가치(인권, 정의, 포용 등)'를 확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이러한 가치들이 통합적으로 학교 및 시민교육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주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이념적 성향을 넘어선 여성계의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이를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여성계의 '사회적 약속'을 만들어 가는 것이 필요하다.⁷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기획하고 실행하는 과정에서 '여성 권리'를 증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이 필요하다. 북한은 유엔기구와의 협력전략계획에서 이미 '성 평등(gender equality)'을 주요한 원칙으로 합의한 바 있다. 또한 북한은 여성차별철폐협약 당사국으로서 국가보고서 제출 및 심의 과정에서 국제기준을 수용하여 국내적으로 관련 법률과 제도 보완 노력들을 부각시키고 있다. 따라서 여성에 대한 폭력 예방 및 보호, 여성에 대한 차별 시정과 같은 공동의 관심사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남북협력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여성계가 아동,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협력사업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7. 김정수, "한반도의 평화와 변영, 여성의 역할" 『평화와 변영의 한반도, 여성의 힘으로』, 여성평화심포지엄 발제문, 2018.6.18, p.9.

V. 토론

제주에서의 여성인권과 평화

권 귀 숙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권기숙

Gwisook Gwon

탐라문화연구원 특별연구원

research associate,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권기숙은 제주대학교 소속 탐라문화연구원의 특별연구원으로 현재 활동하고 있다. 1994년부터 2016년까지 제주대학교 사회학과에서 강사로 역임했다. 주요 학문적 관심분야는 국가폭력, 사회적 기억, 젠더 등이다. 특히 제주4.3에 관심을 갖고 2001년 이후 현재까지 관련 글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다. 제주4.3에 관한 단행본으로는 『기억의 정치』(문학과 지성사, 2006)가 있다. 이 책은 한국학술원의 우수학술저서로 선정되었다. 제주4.3과 젠더에 초점을 맞춘 글이 『탐라 문화』(2014) 및 『4.3과 역사』(2011)에 발표되었고, 강정마을의 평화운동을 다룬 글이 *Asian Pacific Journal* (2011) 및 *Under Occupation* (Cambridge Scholars Press, 2013)에 발표되었다. 최근에는 제주4.3을 영어본으로 출판하기 위한 작업을 진행 중이다.

Gwisook Gwon is a research associate at the Tamla Culture Research Institute in Jeju National University. She taught sociology at Jeju National University from 1994 to 2016. She has been interested in state violence, collective memory, and gender for about 20 years. She has steadily published books and articles on the Jeju Massacre since 2001. Her 2006 book, *Gieog-ui Jeongchi or The Politics of Memory* (Seoul: Munhakgwa Jiseongsa), was designated an Excellent Book of the Year by the Korean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Her recent works about the Jeju Massacre and gender have appeared in *Tamla Munwha*(Tamla Culture)(2014) and in *4.3-gwa Yeoksa*(History of Jeju 4.3)(2011). A book chapter about resisting the remilitarisation of Jeju has appeared in *Under Occupation* (Cambridge Scholars Press, 2013). She is currently working on a monograph about the Jeju Massacre in the English language.

제주에서의 여성인권과 평화

제주4.3사건과 제2의 4.3으로 불렸던 강정 해군기지반대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지역사회에서의 여성인권과 평화를 토의하고자 한다. 규모와 성격은 다르지만, 두 사건은 모두 국가의 공권력, 미국의 군 정책 등과 연관이 있고, 인권과 평화가 주요 주제로 부각되었다.

1. 제주4.3과 여성

1) 4.3시의 여성인권

1998년 『동아시아의 평화와 인권』을 다룬 학술대회에서 제주4.3시의 여성인권 문제가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벌써 20여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4.3당시의 여성인권에 관한 진상조사나 학술연구 등이 여전히 미흡하다. 5.18 민주화운동의 경우, 작년 5월에 성폭력 피해자의 증언이 나온 이후 전국의 여성단체들이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그 결과 6월에 국가인권위원회, 여성가족부, 국방부가 공동구성한 『5.18 계엄군 등 성폭력 공동조사단』이 출범했다. 제주4.3의 경우에도 성폭력, 강제결혼, 여성성에 대한 신체훼손, 성고문 등의 사례가 적지 않다. 4.3생존자의 연령을 고려할 때, 이러한 진상조사가 시급한 상황이다. 진상을 촉구하기 위한 여성연대 및 사회적 연대가 필요하다.

2) 4.3이후 여성인권

4.3이후 남성이 부족했던 공간에서 여성들은 “죽음보다 못한 삶을 살아왔다”고 말한다. 여성들의 죽음보다 못한 삶도 여성인권과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 여성노동, 가부장제의 파괴와 복원에 따른 여성의 위치, 이산가족, 4.3의 정신적 후유증, 여성지위, 여성간의 상호부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여성의 삶을 기록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여성 본인의 상처가 세대를 넘어 지속되는 과정, 즉 4.3 유족과 그 자녀세대의 삶도 연구해야 할 것이다. 현재의 4.3이기 때문이다.

2. 강정의 생명평화운동과 여성

2007년부터 강정에서 해군기지반대운동이 시작되면서 동시에 생명평화운동도 시작되었다. 마을주민, 평화활동가,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이 이 운동에 참가했고, 여성들도 물론 참가했다. 여성주민들은 국내외 여성평화운동가, 수녀 등 종교계 여성 등과 자매애를 나누었다. 그러나 해군기지반대운동의 대표적인 사진 100장에는 여성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 관련 연구도 거의 없다. 생명평화운동은 오늘도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 중이다. 제주4.3의 정신인 인권과 평화가 현재 제주에서 어떻게 실천되고 있는지,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

V. 토론

나비운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길

윤 미 향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윤 미 향
Yoon, Meehyang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
 Representative,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윤미향 대표는 1964년 10월 경남 남해에서 출생했습니다. 1990년부터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간사, 사무국장, 사무총장, 대표를 역임하고, 2016년부터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재단 상임이사를 지냈습니다. 2018년 7월 11일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와 정의기억재단이 통합출범한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윤미향 대표는 일본군성노예 피해자들과 함께 1992년부터 시작된 정기 수요시위를 비롯하여 지난 27년간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에 이 문제를 널리 알리고 가해국인 일본정부의 범죄사실 인정과 공식사죄, 배상 등을 포함한 법적책임 이행을 촉구하는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특히 2007년 미하원과 유럽의회에서 일본군'위안부'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는 데 큰 기여를 했으며, 2012년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 건립을 통해 미래 세대들과 함께 하는 운동의 정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2012년 설립된 나비기금을 통해 콩고, 우간다, 베트남, 시리아 등의 무력분쟁 하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통해 여성인권, 평화운동가로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20년간의 수요일>과 <25년간의 수요일>이 있습니다.

Yoon, Meehyang is Representative of The Korean Council for Justice and Remembrance for the Issues of Military Sexual Slavery by Japan. She has been an integral figure in the Weekly Wednesday Demonstrations to resolve the issue of Japanese Military Sexual Slavery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for more than 27 years. As well as being human rights activist and an author of 25 years of Wednesday, Ms. Yoon has been a hands-on activist in the Korean Council since the organization was founded in 1990. She contributed to adopt resolution in the US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the European Parliament by closely working with local supporting groups in solidarity with. Aiming to pass the victims' lives and history of the movement on younger generations, she set up the Statue of Peace in front of the Japanese embassy to celebrate the 1,000th anniversary of the Wednesday Demonstration in 2011, and established the War and Women's Human Rights Museum in 2012. Following the survivors' honorable decision to help wartime sexual violence victims in the world, she has actively worked for the Butterfly Fund, which supports female victims of sexual violence in armed conflicts.

나비운동, 전시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희망의 길

1. 반복되는 전시 성폭력

2019년은 일본이 전쟁에서 패전한지 74년,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해방된 지 74주년이 되는 해이다. 일제식민지에서 노예의 삶을 거부하며 항거했던 3.1운동 10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하다. 4월과 5월을 살며, 6월을 앞두고 있는 우리에게 어느 한 달도 역사의 아픔의 무게가 가벼운 달이 없을 정도로 지난 우리의 역사는 전쟁과 무력분쟁이 계속 반복되어 왔다. 전쟁과 무력분쟁의 역사는 여성에게 또다른 인권유린의 피해를 안겨왔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무력분쟁하 성폭력 범죄가 인도에 반하는 범죄라는 것이 이미 확인되고 있고, 그 범죄자는 처벌되어야 한다는 권고와 결의들이 계속되어 오고 있지만, 여전히 가해자의 처벌, 피해자의 인권회복의 사례들은 들리지 않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경우, 전후 반세기동안의 침묵을 깨고, 1990년대 초, "내가 피해자다" 라고 목소리를 내며 #me_too를 시작했고, 30여년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거리에서, 일본과 미국, 유럽 등 매년 세계의 거리를 돌며 가해자의 인정과 사죄, 배상을 요구했으며, 세계 여성들이 #with_you로 연대했지만,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피해자의 '강제연행 입증 불가' '자발성'을 앞세우며 피해자 탓으로 책임지우고, 그러면서도 일본정부의 책임은 65년 한일협정으로, 95년 아시아여성평화국민기금으로, 이제는 2015년 12월 28일, 한일정부간에 발표된 '위안부'문제한일합의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의 고통은 국제적으로나 국가적으로, 또한 그 사회 내에서도 무시되거나 외면당하고 있으며, 주변적인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치부되고 있다. 여전히 피해자들을 향해 수치스럽게 생각하는 인식들이 존재하며, 심지어는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국가와 국가 간의 관계, 국제관계를 불편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취급하여 '해결'이 아닌 '처리'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러한 전시 성폭력 피해를 대하는 국제사회의 관례가 제2, 제3의 범죄를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으며, 전시 상황이 아닌 평시 상황에서도 마찬가지로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2. 여성들의 목소리. - #me_too를 부르는 #with_you

일본군성노예제 문제 해결운동은 해방 후에도 여전히 '기생관광', 즉 여성을 '국익' '외화벌이'의 도구로 사용하던 한국 정부와 한국사회에 대한 한국 여성들의 반대와 저항으로부터 시작되었다. 70년대의 노동운동과 민주화운동을 통해 마련된 여성운동의 동력을 기반으로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진보적 여성운동조직이 만들어지기 시작했으며, 그렇게 조직화된 여성운동이 90년대에 들어와서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공동과제로 함께 대응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여성운동에 불을 붙여준 것은 다음아닌 피해자들의 목소리였다.

1991년 8월 14일, 피해자의 첫 번째 목소리를 냈던 김학순 할머니의 고발은 한국의 240여명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로 확산되어갔으며, 북한 219명의 피해자의 목소리로, 필리핀, 인도네시아, 동티모르, 일본 등 전역의 피해자들에게 확산되어 갔다. 그리고 네덜란드와 호주에 살고 있던 피해자들에게 목소리와 이름, 얼굴을 찾아주었다. 피해자들은 일본정부를 향해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단순한 '돈'이 아니라 법적인 배상이라고 외치며, 전시 성폭력 피해자도 경제적인 돈

혹은 인도주의적인 지원 명목의 돈이 아니라 법적인 책임으로 배상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을 입증시키며 목소리를 냈다. 그러한 피해자들의 목소리는 남북연대로, 아시아연대로, 국제무력분쟁지역성폭력 피해자의 연대 등 초국적인 피해자들의 연대로 확산되어 갔으며, 세계 수많은 결의, 권고들이 채택되어 일본정부를 향해 범죄인정과 공식사죄, 법적 배상 등을 요구하기에 이르렀다.

3. 희망, 나비

국제연대 활동을 통해 일본군'위안부' 생존자들은 전쟁이 계속되는 한 전시 성폭력 피해는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에 직면하고, “나도 아프지만, 나와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여성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 선언하며 2012년 3월 8일, 나비 운동을 시작하였다. 그 나비가 콩고와 우간다, 베트남, 나이지리아, 코소보, 이라크 등 전쟁과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생존자들에게 날아가기 시작했고, 시간의 벽을 허물고, 나라의 벽을 허물고, 목소리의 연대를, 인권운동의 연대를 펼쳤다. 연대를 통해 전시 성폭력 범죄를 만들어내는 전쟁을 반대하고, 여성폭력 추방, 여성인권회복을 만들어가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 주어지는 인권회복이 아니라 피해자 스스로 세계를 평화로 변화시켜 가는 주체로 나서고 있는 것이다. 김학순 할머니 혼자서 #me_too는 수백, 수천의 미투가 되고, 수많은 #with_you를 이끌어 내며 세상을 변화시켜 왔다.

일본군성노예제 피해자들에게, 세계 무력분쟁지역 성폭력 피해자들에게 가해자의 책임인정과 사죄, 배상 등을 통해 이루어질 정의실현은 여전히 지연되고 있지만, 지난 30여년 동안 피해자들, 피해자들과 함께 했던 여성들은 나비가 되어 이미 정의의 길을 열었고, 그 길 위를 걷고 있다.

그동안 연구자들의 노력으로 일본정부의 부정에도 불구하고, 일본군성노예제는 명백히 국가의 정책으로, 조직적으로 집행된 성노예범죄였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유엔 등 국제인권기구는 일본군'위안부'는 국가에 의해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인도에 반하는 범죄, 전쟁범죄로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제 세계에서 날아든 나비들이 함께 새로운 세상을 꿈꾸며 날고 있다. 전쟁없는 세상, 피해자/생존자의 연대로, 전쟁에 맞서고 전쟁을 생산해 내는 뿌리를 제거해 내는 작업에 나서고 있는 것이다. 나비는 희망이고 연대이다.

